



**성명 : 이 긍 원 (李肯遠)**

**생년월일 :** 1962년 7월 30일

**소속 및 직위 :** 고려대(세종)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학사 (1985), 미국 Texas A&M 대 석사 (1987), 박사 (1994)

**한국물리학회 주요활동**

정회원 (1994- 현재), 평의원 (2000- 현재)  
기획실무이사 (2007-2008)  
총무이사, 기초과학학회협의체  
총무(2011-2012)  
기획정책위원장 (2015-2016)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교수 (1994- 현재)  
표준연구원 (2007), KIST (2000) 방문연구원  
고려대학교 기획처장 (2015- 2017)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간사 (2008-20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가속기,  
국제협력 소위원장) (2011-2013)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전문위원  
(2014-2015)

**과학기술 정책연구보고서**

기초연구투자확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수립 및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기획 (교과부 2010)  
선진국의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양성시스템 비교  
분석 (교과부 2012)  
국가가속기 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2013)  
국제과학기술기구현황과 활용방안 연구 (연구  
재단 2013)

**국제학술 및 연구활동**

미국 Texas A&M대학 박사학위 총장상 (1994)  
IUPAP 산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gnetism 2012 조직위원회 총무  
Asian Union of Magnetic Society 설립 초대  
집행위원 (2008-2010)  
ICMFS 2009 2011 조직위 총무  
Metallic Multilayers 2023 조직위원장  
일본 동경대 오사카대 방문교수 (2014), 큐슈  
대 국제교수 (2014-2015),  
독일 드레스덴 헬름홀츠 방문연구원 (2014,  
2017)  
90여편의 SCI 학술논문

**연대와 협력으로 여는 한국물리학회의 미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회장 선거 평의원 추천후보 이긍원입니다.  
올해는 코비드19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의료체계, 의료진과 연구진이 없었다면 우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기초과학은 새로운 연구 어젠다를  
개척하고, 국가는 연속성 있는 지원과 인력양성으로 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과학과목선택제의 폐해와 인구감소에 따른 **물리학과  
의 존폐위기, 국가적 지원에서 기초과학의 홀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학회 내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회 대외업무와 정부 위원회 실무를 보면서, **과학계 혹은 국가의  
어젠다로 문제를 극복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방대 교수로서 학교와  
학과의 존폐위기를 경험하였고, 출연연과 긴밀한 공동연구를 하며 연구소의  
애환을 함께 겪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연대하고, 대내적으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차세대 연구자 양성과 미래 물리학에 대한 투자가 국가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계의 만형인 물리학회가 나서서 기초과학학회와 공학학회 등과 연계  
하여 **중등교육에서 소외된 물리 수학 화학의 위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교육과 연구거점에 국가의 지원을  
늘리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습니다.

AI, 바이러스, 인구, 기후, 신냉전 등 우리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지성인 물리학은 사회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과거 전자산업과  
나노산업을 열고, 인터넷을 개발하는 등 물리학은 미래를 개척해 왔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미래물리'라는 연구기획을 사업화하여 국가과제로 제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연구기획기능과 과학기술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학회와  
연구기획 협력을 통해 **국가가 기초과학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학술의 질적 향상과 열린 학회, 모두의 학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JKPS와 CAP의 국제적 visibility를 높이고, 새물리의 외연확장, 물점의  
과학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사업 심의위원 추천  
의뢰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학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회원이라면 누구나 재정공시가 확인 가능한, 투명한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학회 임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방, 여성, 작은 기관의  
물리학자와 미래의 회원인 학생을 포함한 소장학자가 마음껏 활동하고  
평생 물리를 즐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한국물리학회는 과학기술계의 리더로서 세계 수준의 학문적 성숙을 이루고  
국가산업의 중추적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연관 학회를 이끌어 기초연구  
지원의 지평을 앞장서 넓혀왔고, 과학문화확산에 공헌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대 물리학의 역할을 찾아서 미래를 준비  
하겠습니다. 다양한 배려와 기획으로 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모두의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